



발간등록 75-502000-00010-08

열린 포항

2016년 12월호 통권160호



Creative 포항

- 04 포항 Greenway(Eco Greenway)
행복한 녹색문화도시의 숲속으로

미래 & 꿈

- 06 3D프린터
4차 산업혁명의 시작!

동네방네

- 12 호미꽃등대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대설특보시 시민행동요령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외출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가족에게 행선지와 예상귀가시간을 미리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 낮에 외출하도록 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는 피하고 간선도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합니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30cm 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웁니다.
- 집 주변 빙판 길에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알아봅니다.
- 자가용보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열린 포항

2016년 12월호 통권160호



창조경제 허브도시, 포항

Creative 포항

- 04** 포항 Greenway(Eco Greenway)
행복한 녹색문화도시의 숲속으로

사람중심 행복도시, 포항

시민행복

- 06** 포항시 장학사업,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



미래를 여는 도시, 포항

미래 & 꿈

- 08** 4차 산업 혁명의 시작! 3D프린터
- 10** 상생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다
형산강 프로젝트



젊음이 넘치는 해양관광도시, 포항

동네방네

- 12** 호미곶 등대

관광축제

- 14** 호미곶, 사랑과 평화의 빛
제19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 16** 시정소식
- 17** 포항의 먹거리
- 18** 의정소식

- 19** 상생프로젝트
- 20** 문화소식
- 21** 생활정보

- 22** 포항스토리텔링
- 23** 독자 참여

표지설명

청정 동해바다의 바닷바람을 맞고
먹기 딱 좋게 건조되고 있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
겨울철 대한민국 대표 웰빙식품이다.



가장 자연친화적 녹색 생명루트, 에코 그린웨이

‘에코 그린웨이(Eco Greenway)’는 포항 그린웨이의 구체적 실행사업으로 포항의 기존 산림자원을 잘 활용해 시민에게 걷고싶은 길, 걸으면 행복해지는 길을 만들어 행복의 메아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포항의 녹색공간인 풍부한 산림권역의 정비와 체계화를 통해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에코 그린웨이’는 오어지 둘레길과 내연산 치유의 숲, 형산강 상생문화의 숲길 조성 등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포항은 물론 영덕·청송지역의 산림경관을 이용한 산림종합휴양단지과 호미곶 산림레포츠단지, 운제산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복합 산림인프라를 잘 조화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관광도시로의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이다.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일원에 조성될 ‘내연산 치유의 숲’은 산림내 피톤치드와 음이온, 풍부한 산소와 햇빛 등 건강증진 요소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시민들의 건강유지와 질병치유 효과를 주게 될 것이며 형산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항~경주 간 협력강화의 상징으로 주목받는 ‘형산강 상생문화 숲길’은 포항과 경주를 잇는 형산강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해 자치단체 간 우호증진뿐 아니라 환경과 시민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시가지와 산림이 하나의 길로 연결되는 생태도시로 탄생

일부 구간이 조성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오어지 둘레길’도 2017년 완공하여 운제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명승지인 오어사의 역사문화 자원을 잘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품 트레킹코스로 다듬어 갈 것이다. 또 운제산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욕장 조성으로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가운데 에코 그린웨이는 이처럼 창조성이 발휘된 실천적 에코도시 조성전략이다.



오어지 둘레길



운제산 산림욕장 조감도

이렇게 지역 내 산림조성을 통해 산림치유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에코 그린웨이의 근본적 목적이다. 포항 시가지와 산림자원이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생태도시로 재탄생,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내연산 치유의 숲 조감도

포항시 장학회

www.phsjhh.org

포항시 장학사업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

장학기금 300억원 조성,
재경 기숙사(포항학사)의 모범적 운영,
매년 지역 꿈나무 499명에게 장학금 지급,
1991년부터 지역 인재 7천616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포항시장학회, 지역발전 100년을 내다보고 키우는 인재양성

포항시의 '앞서가는' 장학사업이 전국 자치단체에게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포항시장학회는 20여 년 전인 1990년 7월에 출발했다. 처음 출범 당시에는 30억원의 기금조성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30억원으로는 해마다 뛰는 등록금을 감당할 방안이 없어졌고 그래서 포항시는 30억원의 열배인 30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렇게 출발한 300억원 장학기금 조성사업은 가치 있는 포항 미래를 향한 투자였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시민과 각계의 참여로 불과 4년만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 나무는 50년을 보고 심지만, 인재는 100년을 내다보고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대기업과 지역 사회단체, 공공기관, 종교 및 경제단체의 잇따른 기부가 장학기금조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지만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동전 한 닢에서부터 어렵게 번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큰 힘이였다.

이 장학금을 받은 지역출신 인재들이 포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지 포항이 배출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포항시장학회는 매년 대학생, 고등학생 등 499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장학금의 종류도 수능성적우수장학금을 비롯 인재육성, 포항시민장학금, 해양물류관광특성화, 체육특기, 곰두리, 다자녀 장학금 등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눠 포항의 꿈나무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장학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 장학회 장학금 300억원 조성에 참여한 기부자의 고귀한 뜻은 포항시청 내 '명예의 전당'에 새겨져 있다.

재경 포항학사, 포항시장학회가 추진 중인 또 하나의 큰 열매

재경 포항학사는 포항시 장학기금 100억원을 투자해 2014년에 개관했다.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7층, 지하 1층에 73실(1실 2명)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학사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포항시장학금
명예의 전당



포항학사 독서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5개 대학에 걸쳐 145명이 입실해 있으며 1실 2인의 방마다 인터넷 전용선, 각 층마다 세탁기가 비치돼 있다. 120여명 수용규모의 식당과 체력단련장, 독서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고향 포항을 떠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주시와 울진군, 충남인재육성재단 등에서도 포항의 장학사업을 견학해 오고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는 상호 교류를 제안해 오는 등 포항시의 장학사업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문의 : 포항시장학회 ☎054)270-5758



재경 포항학사



4차 산업 혁명의 시작! 3D프린터

지난 11월에 3D프린팅 경북센터 개소
경북 포항에 국내 유일 바이오·메탈 3D프린팅 센터

글로벌 제조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3D프린팅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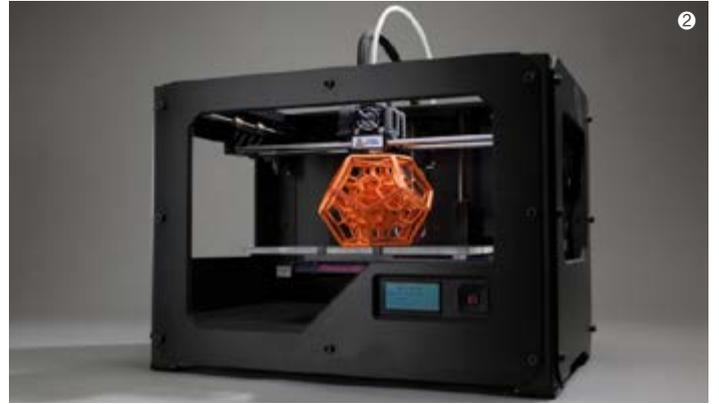
지난 11월 1일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역의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ICT 3D프린팅 경북센터를 개소했다. 3D프린팅은 3차원 모델 데이터를 이용해 금속 분말, 플라스틱, 종이 등의 소재를 쌓아 입체로 물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재료를 자르거나 깎아 생산하는 절삭가공과 대비된다.

3D프린팅 기술은 글로벌 제조업의 총아(寵兒)이다. 2012년 세계 경제포럼(WEF)은 '떠오르는 10대 기술'의 두 번째로 3D프린터를 꼽았다. 이 기술은 로봇 팔, 자동차 엔진부품, 치아 임플란트, 보청기, 보석 등 소형 시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자동차, 항공기 부품, 의료기기 같은 대형 제품 제조로 진전하고 있다.

경북센터는 이번 개소식에서 국내 3D프린팅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주)인스텍, (주)티엔알바이오팜, 3D KOREA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텍과의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기반 산업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❶ K-ICT 3D프린팅 경북센터 개소식



❷



❸

❷❸ 3D프린터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K-ICT 3D프린팅 경북센터는 최근 제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3D프린팅과 관련해 지역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텍 등과 협력해 지역 금속 및 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내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3억원을 들여 디자인(설계)과 프린터, 가공에 필요한 3D프린팅 장비 19종을 구축하고 장비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시제품 제작 등 27건을 사업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재직자 등 135명을 대상으로 공정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3D프린팅 기술지원과 산업체 인력양성을 통해 도내 3D프린팅 거점센터로서 입지도 균형을 계획한다.

포항시는 “3D프린팅은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지역의 로봇, 원전, 자동차 산업은 물론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타이타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며 “경북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3D프린팅이 포항의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타운

상생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다 형산강 프로젝트

포항-경주를 흐르는 형산강을 매개로 역사와 문화, 산업, 생태자원 개발을 통해 포항과 경주의 미래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형산강 프로젝트'

상생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연 '형산강 프로젝트'

형산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은 상생로드, 에코생태탐방로, 상생인도교 개설과 수상레저타운, 송도에코탐방로 조성 등이 있다. 이 중 상생로드 개설사업은 지난 11월말에 완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올해 중에 착공해서 2017년 완공한다.

포항시는 경주시와 공동으로 경상북도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포항-경주를 흐르는 형산강을 매개로 역사와 문화, 산업, 생태자원 개발을 통해 포항과 경주의 미래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기획, 추진하고 있다. 「포항·경주 행정협의회」와 프로젝트 추진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7대 전략과제 20여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올해 13개 사업 1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상생로드 개설, 수상레저타운 조성, 에코생태탐방로 개설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형산강 수변공간을 생태 교육장이자 시민레저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키로 했다.



예코 생태탐방로 전망대



형산강 상생로드 개설사업



형산강 예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상생로드 개설 사업, 수상레저타운, 예코생태탐방로 개설

먼저 ‘상생로드 개설 사업’은 포항-경주 지역 상생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에서 경주시 양동마을까지 두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다. 포항구간은 하천변과 도로폭 조정 공사를 통해 지난 11월말 준공하여 포항시민 여가 생활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또한, 포항시 남구 상대동 일원에 들어설 ‘형산강 수상레저타운’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수상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수상레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인프라 구축으로 형산강 역사·문화의 물길을 따라 도시순환형 레저관광 여건을 조성한다.

‘형산강 예코생태탐방로’는 멸종위기 1급 조류 월동지로 유명한 연일읍 중명리~유강리 일원 형산강 하류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생태환경 전망대와 생태환경 해설판 등을 설치해 서식조류 생태환경 보호와 함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생태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호미곶 등대



호미곶은 우리나라 지도의 지형상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미곶 등대는 1908년 12월 20일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 1982년 8월 4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었다.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으로 천정 치장

호미곶 등대는 백색 팔각형 연와조의 구조로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철근 없이 벽돌로만 지어졌으며 내부는 6층이며 상부는 돛형 지붕형태다. 등탑 내 천정마다 오얏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오얏꽃은 자두나무 꽃으로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경상북도 호미곶 호미곶길 99번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도의 지형상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하여 호미곶이라 불린다.

호미곶 등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 1982년 8월 4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었다. 등대의 높이는 26.4m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으며, 둘레는 하부 24m, 상부 17m이다. 광력(光力)은 1,000축으로 16마일 해상 밖까지 등불이 보이고 2마일 해상 밖까지 들리는 안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1908년 건립된 등대와 등대박물관

호미곶 등대의 건립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01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륙진출의 기반을 다지던 때에 일본 수산실업전문대학 실습선 쾌응환이 대보 앞바다에서 좌초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해안시설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등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프랑스인이 설계하고 중국인 기술자가 시공을 맡아 1908년 9월 19일에 준공하여 같은 해 12월 20일에 최초 점등하였다. 건립 당시 동외곶 등대였으며, 1934년 장기갑 등대로 변경하였고, 1995년 장기곶 등대, 다시 2002년 2월에 호미곶 등대로 변경되었다. 등대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등대박물관이 있다. 1950~60년대에 쓰였던 가스등명기 등롱과 전기 혼나팔, 1960~70년대의 등대지기 숙소와 사무실(모형), 등대일지(1968년) 등 우리나라 등대발전의 발자취와 미니어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문의 : 국립등대박물관 ☎054)284-4857



등탑 내 천정에 새겨진 오얏꽃 문양



등대박물관에 전시된 등대 미니어처



야외전시장의 전기 사이렌과 부도 등대



아세틸렌 가스등명기, 수은조식 회전등명기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박물관





호미곶, 사랑과 평화의 빛

제19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1일 이틀간
포항 호미곶에서 개최되는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은 새해를 맞는
희망의 메시지를 '평화'와 '사랑'으로 화두에 담아
전 국민에게 전하는 의미 있는 잔치로 치러진다.

포항시축제위원회(위원장 장규열)는 정유년 닭띠 해를 맞아 열리는 이번 한민족해맞이 축전에서는 닭띠 해의 국운회복 염원과 최근 국내외 정세에 따른 온 국민의 소망을 담아 '호미곶,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주제를 정하는 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주제는 최근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더 고조되는 팽팽한 긴장관계와 장기간의 경기침체 그리고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 등으로 국민들의 심신이 지쳐있다고 판단, 새해에는 이를 떨치고 각 분야 긴장이 해소되고 이웃, 사회, 가족,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서로 소통해 사랑과 평화분위기를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제19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콘텐츠마다 이 같은 사랑과 소통의 메시지가 배어있다. 해맞이 후 호미곶광장에서 펼쳐질 '하늘에서 복(福)이 내려요'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과 다문화가족 외국인에게 새해 축복을 상징하는 2017개의 복주머니가 사랑과 평화의 의미를 담아 증정되는 대규모 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사랑의 풍등날리기



1만명분 떡국나누기

또 이에 앞서 자정행사에서서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아듀 2016!’, ‘웰컴 2017’ 프로그램에서 영상과 특수효과, 오색찬란 조명을 활용한 치유와 축복의 퍼포먼스가 관광객을 깜짝 놀라게 한다. 이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타종식’, ‘뮤직불꽃쇼’의 순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며, 특히 포항시민과 관광객 대표들이 직접 참가하는 디지털 타종에서는 33번의 종이 울리며 2017년이 밝았음을 세상에 알리게 된다.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풍선 2017개 날리기’와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손잡기’ 순서에서는 해상테크에서 입체적인 불꽃이 터지며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이 밖에도 사랑과 평화를 축제장에서 맛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푸짐하게 준비된다. 호미곶의 하늘을 사랑의 사연들로 수놓을 ‘사랑의 풍등날리기’가 두 차례 열리는 것을 비롯 중앙무대에 닭 조형물이 설치되고 무대 양측에 ‘LOVE’와 ‘PEACE’를 새긴 이미지가 LED화면을 통해 표출돼 생생한 포토존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호미곶의 지형특성상 강한 바람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대형텐트를 이용한 방한대책을 강구 중이며 부대행사로 소원지달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컬링, 아이스하키체험, 닭 옷놀이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번 해맞이 축전에 담아낼 계획이다.

문의 : 포항시축제위원회 ☎054)270-2255

회색빛 철강도시 포항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포항 GreenWay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포항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 중인 '포항 그린웨이(Greenway)' 프로젝트가 11월 8일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해도공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및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하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발대식을 마친 후 형산로터리에서 연일대교에 이르는 형산강둑 구간에 왕벚나무와 모감주나무 등 500여그루를 심으며 도심과 수변지역, 산림지역이 서로 연결된 녹색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녹색 포항건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행사관계자는 “회색빛 도시가 녹색 생태도시로 변하고 움츠렸던 도시가 활력을 되찾는 도시로 변화하는 그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도시 안에 녹지와 숲을 확보하고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도시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삶의 품격이 높아집니다’를 가치로 한 포항 그린웨이를 통해 그동안 철강산업도시로 대표되던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자연,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은 폐철도 부지 및 송도송림 도시 숲, 호미반도 해안둘레길과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 등으로 포항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포항만들기다.



구룡포 과메기

보름쯤 말린 콩치를 초장에 찍어 먹는다.
최근에는 전 국민이 즐기고 있다.

과메기는 겨울이 제철이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11월 중순부터 날씨가 풀리는 설날 전후까지 과메기를 말린다. 포항의 대표 겨울특산물 '과메기'는 구룡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하늬바람이 과메기를 만든다는 말처럼 구룡포는 바람, 온도, 습도 등이 과메기 생산에 최적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



포항초, 해풍시금치

포항 재래종 시금치는 10월~3월까지가 제철이다.

포항초는 포항에서만 재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 개량종 시금치에 비해 키가 작지만 향과 맛은 훨씬 뛰어나다. 포항의 바닷가 노지에서 햇빛과 바닷바람, 유기 퇴비를 먹고 자란다. 바닷바람이 적당한 염분을 제공하여 맛을 더 좋게 해주고, 뿌리 부분에 흠이 쌓이도록 모래땅을 복토해주므로 뿌리가 길고 강하면서 빛깔도 보기 좋은 붉은색을 띤다.



구룡포 대게

구룡포는 전국 최대 대게 생산지이다.

전국 대게 유통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룡포는 수심 200~400m 청정심해에서 포획한 대게로 속살이 희고 속이 짙차 있으며, 쫄깃쫄깃하고 껍질이 부드러운 게 특징이며, 필수 아미노산의 보고이다.

맛있는 대게를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은 포항 구룡포다.

포항부추

포항 정구지 맛이 좋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구지란 명칭은 '정월에서 구월까지 먹는다'는 말에서 생겼으며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부추'가 표준어인데 '정구지'란 경상도 사투리도 많이 쓰인다. 겨울날을 이겨낸 청록의 자태는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상큼한 정구지 향은 코 끝을 자극해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 포항 지역에서는 전국 부추생산량의 약 80%에 이른다.

포항시의회, 긴급 임시회 열어...민생안정 '올인'

제2회 추경 1조5천630억원 확정...경기활성화 마중물 제공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가 10월 27일 ~28일까지 이틀간 예정에 없던 임시 회를 긴급히 소집해 1조5천630억원에 이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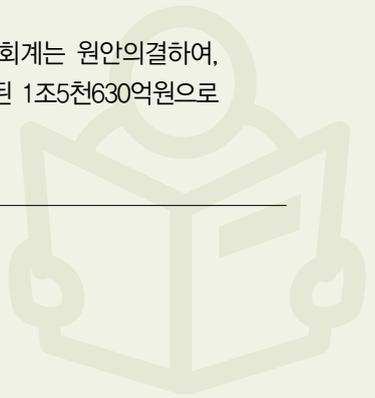
시의회는 정부 추경에 발맞추기 위한 집행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와 내년 주요사업 조기추진 을 위해 비상 간담회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조정했다.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순동 의원이 위원장으로, 강필순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김상민·김우현·김일만·박경열·백강훈·복덕규·이상근·이해수·홍필남 의원으로 구성 돼 예산심사에 나섰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7천525



만2천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했고,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0억원(1.82%)이 증액된 1조5천630억원으로 확정했다.



포항시의회, 법률 고문 위촉

법률고문 위촉으로 전문성 강화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중앙)가 김제식(오른쪽), 김상태(왼쪽) 변호사를 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재위촉 했다.

시의회는 의정활동 전반과 각종 법적인 사안에 법률자문을 해 전문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법률고문은 앞으로 2년 동안 의회와 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적 사안처리, 우리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을 돕는다.



EVENT
The end of 2016, Start for 2017

2016년의 끝과 2017년의 시작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 16연말 17연시 행사패키지



슬슬 다가오는 2016년 연말, 2017년 연시!
우리 회사 or 단체 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세요?

상품안내

프리미엄 패키지 PREMIUM PACKAGE	뷔페 or 한식정찬 (현대호텔)	
	세미나/워크숍 동반 시 1인 57,000원	연회행사만 진행 시 1인 47,000원
버젯 패키지 BUDGET PACKAGE	전골류 (로터스뷔페)	
	세미나/워크숍 동반 시 1인 32,000원	연회행사만 진행 시 1인 22,000원
공통 포함내역	행사장 + 케이터링 + (기본)현수막 + 마이크 (유선 2, 무선 1) + 빔프로젝터 + 이동식무대	
잠깐!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50인 이상 별도 추가세팅 시 추가비용 발생 (공연조명, 음향, 정수기 등) 비용 조정을 통한 식사메뉴 조정 가능 회의실 전일 사용 기준 	

보너스 이벤트

상나 HICO에서 커피 쏘ندا!
특별한 원두로 내린 골레 연말연시프로모션
커피 50잔을 HICO에서! ※ 행사예약 선착순

돌 다음 행사도 HICO에서!
2017년 HICO행사 시,
행사장 **대관료 30% 할인!**

새 올 연말행사는? 교양있게 마무리!
"문화와 함께하는 기업행사" 특별 프로모션!
<바실라> 공연 연계시 **40% 할인적용**
HICO-공연장 교통제공

HICO 16연말-17연시 행사 패키지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혜택!

※ 본 패키지는 16년 11월부터 17년 2월까지 열리는 행사에 한합니다.

이용문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마케팅팀

054)702-105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hicomarketing.com

문예아카데미 '인문학의 숲, 포항' 개최

일시 2016. 12. 1(목), 7(수) 10:30~12:00
장소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루 (1층, 강당)
계획 첫 번째 2016. 12. 1(목) 10:30 ~ 12:00
 강사 : 김윤규 한동대 교수
 제목 : 문학과 우리의 삶
 두 번째 2016. 12. 7(수) 10:30 ~ 12:00
 강사 : 김성삼 대구한인대 교수
 제목 : 맛있는 예술감상
문의 문화예술과 ☎270-2873~4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포스텍 개교 30주년 금난새 음악회

일시 2016. 12. 2(금) 19:30
장소 포스텍 대강당 지휘 금난새
내용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 서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e 단조 Op.64 외
문의 포스텍 문화프로그램위원회 ☎279-2432



해오름동맹 특별음악회

일시 2016. 12. 6(화) 19:30
장소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출연 포항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티켓 전석 3,000원, 티켓링크(1588-7890)
문의 문화예술과 ☎270-5483

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작 택시 드리벌

일시 2016. 12. 10(토) 15:00, 19:00
장소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출연 강성진, 조가비, 김수로, 장격수, 김동현 외
티켓 V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포항문화예술회관 ☎280-9355
 티켓링크 ☎1588-7890



2016 송년예술제 및 예술인의 밤

일시 2016. 12. 15(목) 17:00
장소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연령 전 연령층
내용 포항예총 8개지부의 전시 및 공연
 유공예술인 표창
문의 문화예술과 ☎270-2872~4

'심쿵' 크리스마스 콘서트

일시 2016. 12. 18(일) 17:00
장소 포항대학교 평보체육관
티켓 VIP 90,000원, R석 80,000원, S석 70,000원
출연 조장혁, 김태우 등
문의 ☎1577-4146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일시 2016. 12. 17(토) ~ 18(일)
 12. 17(토) 14:00, 16:00
 12. 18(일) 11:00, 14:00, 16:00
장소 포항시청 문화동 대접홀
티켓 전석 30,000원
문의 ☎1644-5564

셀러브리티 로코연극 '러브액츄얼리 오리지널'

일시 2016. 12. 23(금) ~ 25(일)
 12. 23(금) 19:00
 12. 24(토) ~ 25(일) 14:00, 19:00
장소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정상가 30,000원
문의 ☎1600-0316

포항·경주 합동 창작뮤지컬 형산강에는 용이 산다

일시 2016. 12. 27(화) ~ 30(금)
시간 120분 (19:30~21:30)
장소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연령 만7세 이상
티켓 R석 20,000원, S석 10,000원
예매 인터넷 예매 티켓링크(1588-7890)
문의 문화예술과 ☎270-5483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간 2016. 11. 1 ~ 12. 16
대상 지방세 체납액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
 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내용 장기 체납자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문의 지방세 : 남구 세무과 ☎270-6271
 북구 세무과 ☎240-7271
 세외수입 : 재정관리과 ☎270-5164

2기분 자동차세 정가분 납부

기간 2016. 12. 16 ~ 31
의무자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세액 연간 납부할 세액의 1/2
 단,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6월에 납부한 자동차와 연간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중 선납한 자동차는 제외
방법 신용카드(은행CD / ATM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ARS시스템
 (☎1588-5260)을 이용하여 납부
문의 재정관리과 세정팀 ☎270-2481
 남구세무과 시세팀 ☎270-6241
 북구세무과 시세팀 ☎240-724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결혼이민여성 등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긴급구조, 상담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
 신고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 ☎054-1366
방문상담 가정 내 방문 및 사례관리
현장상담 위기 개입시 현장 출동 및 지원
사이버상담 www.kbwomen1366.org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및 방문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
 결제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비씨, 농협,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현대, 우리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
 ●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한 경우 기부자 본인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가능
문의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46-2979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256-3939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조치요령

- 수도계량기통 내부를 보온재(현웃, 담요, 왕겨, 스티로폼 등)로 꼼꼼히 채운 후 계량기통 뚜껑을 잘 닫아야 합니다.
- 영하 5℃ 이하로 예상되는 날은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동파를 예방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사용토록 합니다.
- 옥상물탱크와 연결되는 상수도관은 스티로폼 등으로 감싸서 동파를 예방합니다.
- 수도관과 계량기가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헤어드라이기 또는 미지근한 물로 녹입니다.
- 동파된 계량기 및 상수도관 발견시에는 신속히 신고합니다.

문의 상하수도행정과
 ☎270-5491 또는 270-8282

폐업신고 간소화 신청안내

처리절차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를 동시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 후 처리
문의 자치행정과 ☎270-2126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안내

기간 2016. 11월 부터
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988. 1. 1 ~ 2005. 12. 31 출생)
자격 3인 가구 월소득 143만원 이하
 (직장보험료 44,205원)의 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소년소녀 가장보호아동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내용 현물로 지급번호를 고려하여 소형, 중형,
 대형(총 108개)을 1세트로 지급
 대상자 및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생리대를
 받을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는 복지시설에 비치된 3개월
 분량의 생리대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남·북구보건소 ☎270-4208, 4254



새포항을 건설하자! 어업도시에서 철강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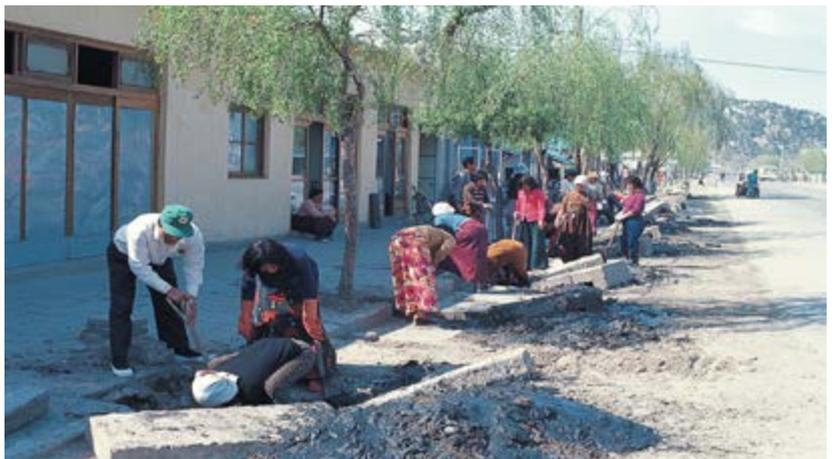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은 현대화되기 시작했다.
포항도 70년 중반부터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5호광장 일대의 상도동과 대도, 해도를 비롯한
학산동, 창포동, 장성동 일대의 농경지에
주택과 상가들이 들어섰다.
2016년 현재, 포항 *GreenWay* 처럼...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에서부터
청장년,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때는
새포항 건설에 함께 했던 시절이었다.



학산동 철로변을 정비하는 마을 주민들 (1972)



포항중학교 앞 철로변 정비에 초등학생들도 한 몫 (1972)



하수구 준설에 나선 시민들 (1972, 대신동)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시정퀴즈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길,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중 가장 자연친화적
녹색 생명루트로 2016년 12월호 크리에이티브 포항
코너에 소개된 길은 ○○그린웨이이다.
○○에 들어갈 말은?



11월호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조현영(성실로), 김채연(새천년대로), 이혜경(정몽주로)
오정애(강원도 동해시), 홍다겸(중앙로), 조희경(지곡로), 손상하(달전로)
정경희(경기도 의정부시), 구근형(경기도 용인시), 강문일(경북 울릉군)입니다.



포항의 관광명소를 담은 사진과 짧은 글을 보내주세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잠깐의 휴식을
가져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엄마랑 보경사 가을 단풍보러 다녀왔답니다 (박경애님, 양향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공경성님, 흥해읍)



벤티머리마을 국화꽃 잔치 (김수정님, 중흥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남선영님, 삼흥로)

'그때 그 시절에는...'에서는 포항의 숨은 역사를 찾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역사 속에 잠들어 있는 한 장의 사진이 현재에 응답하는 순간, 역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포항을 있게 한 과거 포항의 향토상을 담은 사진을 찾습니다. 시민들이 포항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시정퀴즈'와 '손바닥 세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주소, 연락처, 사진과 사진설명을 기재해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우편으로 12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자를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청 홍보담당관실 열린포항 편집담당자 앞
- 전자우편 kankam00@korea.kr [열린포항]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054) 270-2232~4, www.ipohang.org로 신청해주세요!

제19회

호미꽃 하미조 해맞이 축전

제19회
호미축전
위원회

2016. 12. 31
▶ 2017. 1. 1
호미꽃
해맞이광장

호미꽃 사랑과 평화의 빛

주최 **ipohang**
포항시

주관 **포항시축전위원회**
Pohang Festival Committee

후원 **경상북도**
GYEONGSANGDO

DGB 대구은행

NH농협은행

■ 또 하나의 포항

홈페이지 www.ipohang.org

포항시 인터넷 방송국 tv.ipohang.org

공식트위터 twitter.com/inpohang

공식페이스북 facebook.com/inpohang

공식블로그 blog.naver.com/inpohang

포항시 인터넷 신문 news.ipohang.org